

강기정 광주시장

“노벨문학상 이은 벽찬 감동”



통산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일군 이범호 감독님과 코칭스태프, KIA 타이거즈 선수들, 참으로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광주시민의 이름으로 V12를 뜨겁게 축하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이은 KIA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우승은 광주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가슴 벅찬 감동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광주와 함께 울고 웃은 타이거즈의 43년 역사에는 우리 시민들의 일상 속 기쁨과 환희, 기대와 설렘, 웃음과 활력, 그 모든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광주는 KIA 타이거즈를 품은 참으로 행복한 야구의 도시입니다. 그 진한 향기가 더없이 아름다운 이 가을, 타이거즈의 V12를 광주시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양인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우승 더불어 경제발전 전진”



KIA 타이거즈가 한국시리즈 통산 12연 패라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2024년 10월 28일은 기아 타이거즈 팬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넘어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라도에서 야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 지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 넣어 주었고, 대리만족의 통로였습니다. 오늘 새로운 역사를 만든 KIA 타이거즈 최준영 대표이사과 이범호 감독과 모든 선수들이 보여준 노력과 헌신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정규 리그와 한국시리즈 우승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해준 기자동지들과 타이거즈 관계자들에게도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대한 성과를 기쁨에 새기며 지역경제 발전과 성장을 위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김영록 전남지사

“호남인에 희망과 용기 선사”



KIA 타이거즈의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온 전남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불굴의 투혼과 의지로 압도적인 경기를 펼쳐 주시며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달성해주신 이범호 감독님과 선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KIA 타이거즈가 한 시즌 최대 매진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신 기아팬과 호남인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최고의 감동을 선사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지역민 모두 크나큰 기쁨과 자부심, 뜨거운 용기와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KIA 타이거즈가 이번 우승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프로야구 역사에 전설로 길이 빛나며 호남인의 긍지를 드높여 주시길 온 전남도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김종모 KBO 재능기부위원

“후배들 불패 신화 감개무량”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이 우승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후배들이 '불패 신화'를 이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타이거즈 팬들도 많이 기다렸을 순간인데 다 같이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현역 시절 6번 우승을 했고, KIA와 삼성 코치로도 5번의 우승을 했었는데 1차전 시포자로 다시 한국시리즈 무대를 찾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1차전은 우승팀이 긴장을 하게 되는데, 예상대로 선수들이 굳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리즈에는 변수가 있는데 비가 오면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홈에서 이렇게 우승을 이루게 된 것도 의미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야구 도시 광주에 우승 화답”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기 구단 KIA 타이거즈의 V12를 축하합니다. 열두번 진출한 한국시리즈에서 모두 우승하는 엄청난 대업을 이루기 위한 선수단의 노력과 끝까지 응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팬들에게 광주 체육인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도시 광주는 창단 100주년을 맞은 명문 광주 일고 야구부를 비롯해 야구 테마의 거리 등 광주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야구에 진심인 광주에 우승으로 화답해준 KIA 타이거즈 선수단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우승을 이어가는 명문 구단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도훈 동성고 포수·주장

“함께 뛰고 싶은 꿈 더 커져”



KIA 타이거즈 우승을 축하합니다. 아버지가 사퇴한 야구를 하셔서 송정동초 2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고, KIA 야구를 보면서 프로야구 선수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2017년에 우승할 때는 4학년이었는데 마지막 포수 파울 플레이 아웃이 생각납니다. 내년엔 3학년이라 이번 우승은 더 특별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도 저 그라운드에서 같이 뛰어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저도 내년엔 그라운드에서 뛸 수 있게 후회 남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프로 지명 받고, 우승을 이룬 KIA 선수들에게 인사 하러 가겠습니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지역 경제 전반 희망과 활력”



KIA 타이거즈의 2024년 통합 우승을 광주시민, 그리고 광주 경제인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규리그와 코리아시리즈에서 보여준 탁월한 경기력과 탄탄한 팀워크는 야구팬을 넘어 모든 지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우리 지역과 경제 전반에도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KIA 타이거즈의 승리는 지역 대표산업인 자동차산업을 이끄는 기아와 함께 광주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주는 쾌거입니다. 앞으로도 기아와 KIA 타이거즈가 우리지역 경제와 대한민국 스포츠를 선도하는 기업과 구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다예 타이거즈 팬

“우승으로 큰 행복 선물 받아”



KIA 타이거즈의 2024 한국시리즈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김도영 선수의 최연소 30홈런-30도루 달성부터 한국시리즈 4차전 만루홈런의 김태균 선수까지 KIA 타이거즈의 2024년은 저에게 큰 감동과 행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야구에 관심이 없었던 저를 야구가 끝나면 다음날 매일같이 기사를 찾아보게 만든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특히 다치지 않는까 조마조마하며 경기를 응원했던 마음이 '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로 돌아와 기쁩니다. 앞으로도 모두 다치지 말고 기아에서 행복하게 야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7년 만의 통합 우승을 축하하며, 모든 선수들에게 이번 시즌 수고 많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숙박업 만실·고속버스 증차·식당 매출 상승 ... 지역 경제도 '활짝'

광주유탑부티크·라마다호텔 등 1~4차전 경기일정마다 예약률 20% 이상 증가
금호고속, 30대 이상 임시증차... 경기관람 가능한 주점·식당, 인파 몰려 주문 폭주
'치킨' 주문도 정규 시즌때보다 40% 이상 증가... 캠핑 인근 중국집 매출 3배 늘어

KIA 타이거즈가 '2024 프로야구' 정규시즌 1위에 이어 한국시리즈에 진출하면서 지역 경제가 모처럼 만개 웃음을 지었다. 한국시리즈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KIA 타이거즈의 홈구장인 KIA 챔피언스 필드를 비롯해 지역 상권에 매출이 급증했다. 한국시리즈 경기 전날 지역 숙박업소는 연일 만실을 기록했고, 고속버스 수요도 늘어나면서 임시배차는 30대 이상 늘었다. 28일 숙박업계에 따르면 광주유탑부티크호텔은 한국시리즈 광주 경기 기간 중 전체 498개 객실이 가득했다. 10월의 경우 세미나와 포럼 등 행사가 많은 달이라 예약률이 증가하는 기간이지만 한국시리즈로 인해 만실을 기록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객실 예약률이 20% 이상 증가했다는 게 호텔 측 설명이다.

이 호텔은 한국시리즈로 인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성수기 가격을 적용했지만, 객실은 모두 팔려나갔다. KIA 챔피언스 필드와 가까운 라마다중앙호텔 예약 상황도 비슷했다. 라마다중앙호텔은 타지역 KIA 타이거즈 팬들이 정규시즌 자주 이용하는 호텔이었는데, 한국시리즈 경기 전날 전체 96개 객실 중 20%를 '직관' 팬들이 채웠다. 운송업계도 방긋 웃었다. 금호고속은 한국시리즈 경기 당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서울 14대, 전주 8대, 목포 2대, 순천 3대 등 5개 구간에 걸쳐 32대를 추가 배치했다. 특히 대구에서 원정 오는 삼성 라이온즈 팬들을 위해 대구-광주 간 버스도 5대 늘렸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32대 임시배차는 명절까지 아니더라도, 행사철 공휴일 수준"이라며 "한국시리즈를 관람하려는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팬들의 예매가 늘어나 배차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지역 경제도 KIA 타이거즈 덕분에 숨통을 틔웠다. 야구를 볼 수 있는 주점과 음식점이라면 어김없이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해 주문을 제한하는 사례도 나왔다. 야구 경기 먹거리를 대표하는 '치킨'의 경우 배달횟수가 정규 시즌때보다도 40% 이상 올랐다.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 이모(23)씨는 "경기가 없는 날은 배달횟수가 40회, 정규 시즌 당시 홈에서 야구 경기가 있는 날도 90회 정도였는데, 최근 한국시리즈가 있는 날엔 홈과 여웨이 경기를 구분하지 않고 배달 횟수가 130회를 상회했다"며 "치킨 프랜차이즈가 다양하고, 동네별로도 경쟁업체, 점포들이 많아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배달 횟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지역 구단의 우승을 앞두고 지역민들의 응원 열기가 높아지면서 치킨 소비 역시 덩달아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시리즈 기간 치킨의 인기는 배달요청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평소 별다른 내용이 없었는데, 한국시리즈 경기가 있는 날은 '야구 경기 시작 전에 꼭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사항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챔피언스 필드 인근 '맛집'으로 SNS와 블로그 등에서 유명세를 탄 A 중국집의 경우 한국시리즈 기간 매출이 3배 이상 뛰었다. A 중국집 관계자 김모(여·60)씨는 "평소 100~110인분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번 한국시리즈 경기가 있는 날에는 일평균 360인분을 팔았다"며 웃어보였다. 김씨는 "한국시리즈 기간 중 휴경기가 있는 날은 테이블이 가득 차 웨이팅 줄이 길게 늘어이기도 했다"며 "특히 식사 피크타임에는 KIA와 삼성 유니폼을 입은 야구팬 손님들이 최대 12팀까지 웨이팅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민 뿐만 아니라 서울, 전주 등 타지에서 온 기아 팬들도 많았고, 삼성 유니폼을 입은 팬들도 전체 매출의 20% 정도는 차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insurance with text: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